1-21-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고린도후서 5:1-10
말씀제목: **휴거되는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7 년 대환란 심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성령의 전이 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에 하늘들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요일 3:2, 빌 3:21). 이때 우리의 몸은 썩을 장막집과는 비교가 않될 정도로 주님처럼 거룩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면서 신음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오는 집으로 옷입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입혀지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죽을 몸과 썩을 몸이 영원한 생명에 의해 삼켜지는 것이며 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신비로운 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전 15:51-54)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고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다만 한 가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정죄 받아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각자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이나 악한 일에 대하여 각자가 행한 것들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일에 대해 책망도 받고 동시에 보상도 받는 심판석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일에 대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더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롬 14:8-13)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 보상 받을 일과 오히려 행한

일들을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증거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 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전 3:10-15)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보상에 대하여 여러가지 면류관이 있음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이 면류관들은 앞으로 오게되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딤후 4:8)을 비롯하여 구령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면류관(살전 2:19),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약 1:12, 계 2:10)),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고전 9:25), 신실한 목회자에게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벧전 5:4)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7 년 대환란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회개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드려진 네 희생제나 네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들을 갚으라.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 50:1-8, 14-15)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 네가 내 규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네가 교훈을 싫어하고 내 말을 네 뒤에 던지는도다.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는 속임수를 발하는도다. 네가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네 눈 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잘게 찢으리니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16-23)

아멘! 할렐루야!